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4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환경특별시추진단	담당자 • 환경특별시추진담당 • 담당자	오순량 ☎458-7122 박미애 ☎458-7125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 위해 함께 힘쓴다
 - 2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인천 탄소중립 전략 주제로 -

인천광역시는 24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을 초청해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오는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2년 중앙부처 주요업무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 중점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인천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시정 전반 대응전략을 수립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 등 부분별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등 인천형 2050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해 다방면의 전략이 논의됐다.

인천지속발전협의회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환경특별시 인천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장정구 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시민들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추진관련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 협업을 위해 매달 시민사회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간담회 추진현황

- 21. 3,4월 : 환경특별시 추진 정책방향 및 시민단체협업
- 21. 5월 : 해양쓰레기 해결방안 논의
- 21. 6월 : 환경특별시민 선정 홍보 및 강화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1. 8월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해상풍력 추진현황
- 21. 9월 : COP(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인천 유치
- 21. 10월 : 친환경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구현
- 21. 11월 :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 21. 12월 : 해양친수도시 기본계획
- 22. 1월 : 어촌 6차 산업과 바다환경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